

출장 보고서
2025. 10. 16. ~ 10. 21.
미국 뉴올리언스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 제64차 콘퍼런스 참석 및 사례 발표

2025. 11. 12. (수)

송 인 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권 기 대 교육기획운영실장
표 초 희 시민사회교육팀장
김 유 영 전문연구원

I. 출장 개요

1. 목적

-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교육 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CE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가 주최하는 제64차 교육자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경제교육 콘텐츠 및 방법론, 경제교육 동향 등 최근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미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금융 교육 관련 기관과 학계가 참석하는 콘퍼런스임.

- 또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참가자들은 발제자로 참여해 2024년 개발한 경제교육 애니메이션 콘텐츠 『지구별 경제 탐험(Adventure into Earth's Economy)』를 시연하고, 실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을 소개하는 한편 미 경제교육 전문가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함.

2.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5. 10. 16.(목) ~ 2025. 10. 21.(화)

- 장소: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Sheraton New Orleans Hotel

3.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장자: 송인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외 3인

순번	이름	소속	직위
1	송인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실	경제교육·정보센터소장
2	권기대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교육기획운영실장
3	표초희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시민사회교육팀	시민사회교육팀장
4	김유영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자료개발실 교육콘텐츠팀	전문연구원

□ 출장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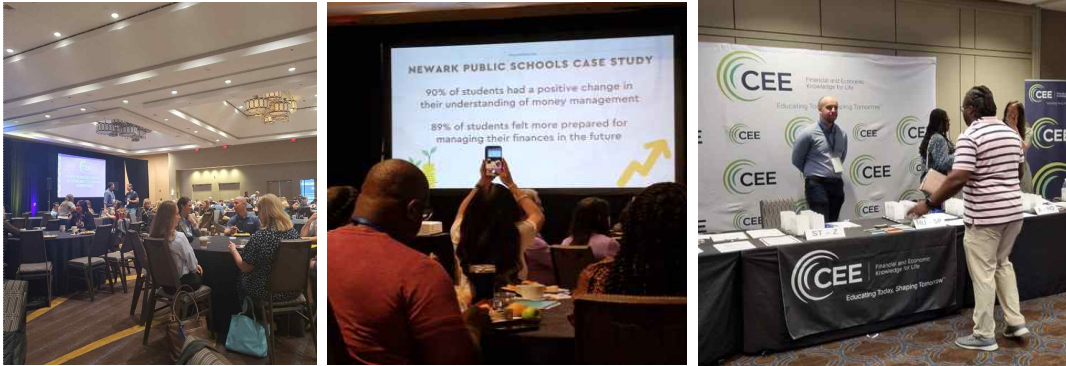
일자	시간		일정
2025-10-16(목)	KST	09:20	인천국제공항 출발
	UST	14:30	루이 암스트롱 국제공항(뉴올리언스) 도착
		18:00 ~ 20:00	Reception(CEE Network & NAEE) 참가
2025-10-17(금)	UST	07:00 ~ 17:15	1일차 기조연설 및 컨퍼런스 개별 세션 참가 ※ 15:30~16:15 KDI 발표
		17:30 ~ 18:30	FRE(Federal Reserve Education) 프로그램
2025-10-18(토)	UST	08:00 ~ 09:10	Reception(International Economic Education)
		09:15 ~ 13:00	2일차 기조연설 및 컨퍼런스 개별 세션 참가
		17:00 ~ 18:30	경제교육 관계자 면담
2025-10-19(일)	UST	18:40	루이 암스트롱 국제공항(뉴올리언스) 출발
2025-10-21(화)	KST	05:00	인천국제공항 도착

II. 주요 사항

1.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 및 제64차 교육자 콘퍼런스 소개

-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는 미국의 유아부터 고등학생(K-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제·금융 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임.
 - CEE는 1949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뉴욕 소재) 및 49개 주(州) 경제교육협의회, 300여 개 경제교육센터로 구성된 미국 최대의 경제·금융 교육 유관 기관임.
 - CEE는 경제교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in K12 Economics)과 개인 금융교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토대로 교사 연수 및 학생 대상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종류의 경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확산에 주력
 - CEE는 매년 연례적인 콘퍼런스를 개최해 교육 관계자들이 경제·금융 교육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션과 소통의 장을 마련
 - 경제교육 및 금융 문해 분야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활동과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기회 제공
 - 또한, 경제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
 - 2011년부터는 미국 이외의 국가 참가자들 간 국제 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교육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
- 제64차 교육자 콘퍼런스는 루이지애나 경제교육협의회(Louisian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주관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개최
 - 금년도는 경제교사이자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인 Jacob Clifford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Get Good with Money』 저자인 Tiffany Aliche ‘The Budgetnista’ 대표의 기조연설과 경제·금융 교육 사례 및 콘텐츠 등 45개 참여형 세션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

< CEE 등록 및 기초연설 사진 >



2. KDI의 발표 내용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발제자들은 ‘Adventure into Earth’s Economy’ 라는 제목으로 4~8학년 학생들이 흥미롭게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 콘텐츠 및 워크북을 소개
- ‘Adventure into Earth’s Economy’는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서 제작한 초등 고학년 및 중등용 경제교육 영상 콘텐츠 『지구별 경제탐험』의 영문 판으로, 이코와 로미라는 두 캐릭터가 등장해 희소성, 기회비용, 신용, 무역 등 핵심 경제 원리와 개념을 흥미롭게 풀어내 학습자의 몰입도와 집중력을 높이고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지구별 경제탐험』 개요 >

영문명	Adventure into Earth’s Economy
교육 대상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4~8학년)
교육 내용	① Ep 1. scarcity & choice ② Ep 2. supply & demand ③ Ep 3. credit ④ Ep 4. finance & asset management ⑤ Ep 5. taxes & government spending ⑥ Ep 6. trade
에피소드 수	총 6편(편당 10분 내외)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udr40MrWhZM?si=ZFQ8PEcnOiReGXKp

영상(1화) 썸네일	워크북
	

- KDI 발제자들은 세션 참가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Episode 1을 현장에서 상영하고, 영상에서 본 것을 워크북을 통해 어떻게 학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 워크북은 쉬운 복습 활동으로 학생들이 영상에서 본 경제 개념을 상기한 뒤 영상 회차에서 다루는 경제 개념을 이해하면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고, 옆자리의 친구 또는 그룹과 함께 가볍게 토론하는 3-step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세션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간단히 소개한 후, 워크북 마지막의 학생들의 흥미 유발용 Mini game(Bingo)을 참가자들과 직접 수행
- 또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KDI의 설립 과정과 지난 50여 년간 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개발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유
 - 특히 취약계층별 특성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문제 인식과 차별화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소개

< CEE 발표 현장 >



3. 주요 세션 정리

가. 동시 운영 세션(Concurrent Session)

□ Opening Plenary - Keynote Speaker with Emcee

- 고등학교 경제 교사였고 현재는 백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버로 왕성히 활동 중인 Jacob Clifford가 진행한 오프닝 세션으로, 20년 이상 경제학을 가르쳐 오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도 방법을 소개
- 그는 이 교수법을 <The Cow Analogy>라고 명명하는데,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가르칠 때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한 번에 알려주지 않고 여러 라운드를 거쳐 가며 한 교실의 모든 학생이 답을 알아갈 때까지 스스로 또는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임.
 - 첫 단계에서는 가르치려는 개념 또는 현상을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함.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그 대상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다음으로 학생들이 서로 질의 응답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이렇게 진행할 때 단계별로 학습 대상을 알아가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며, 중간에 교사는 모르는 학생을 지목하거나 지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 전략의 핵심은 각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서로 질문하며,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임.
- 실제 발표 중에 이 방법을 적용해 옆 사람과 함께 라운드를 진행하며 주어진 경제 개념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활동을 함.

□ Elementary Economists — How The Future Learns Financial Literacy

- 해당 세션에서는 25년간 초등 및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Colleen Kelli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문해(Financial Literacy) 교육의 접근법을 가르침. ‘아이들의 언어로 금융을 가르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시선에서 이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 활용한 프로젝트들과 놀이 및 게임 사례를 소개함.

- 학급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 부모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 프로젝트나 의자 뺏기 게임, Needs & Wants bag 활동 등을 소개하고 실제 해보면서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 TPT 사이트(teacherspayteachers.com)를 소개하며, 사이트 내 본인 채널에서 다양한 금융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시함을 안내
 - TPT는 교사들이 직접 만든 교육 자료 공유 사이트로, 방대한 유·무료 교육 자료가 탑재되어 있음.
 - 초등 저학년 이하의 학습자에게는 경험 기반의 감각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Hands-On Finance Made Simple: Explore Intuit for Education's Real-World Simulations
- Intuit for Education(Intuit Inc.)에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전문가인 Dan Cannon과 New Jersey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의 Alex Lamon이 함께 발표한 세션으로, Intuit에서 개발한 세금 계산기를 활용해 실제로 함께 금융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짐.
 - 핀테크 기업 Intuit Inc.가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인 Intuit for Education은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실제 금융 환경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open resource)됨.
 - Intuit의 프로그램은 실제로 돈을 다루는 감각과 의사결정과정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함. 해당 세션에서 진행한 Tax caster 계산기는 사용자가 소득이나 신고 상태,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입력하면 납부 세액을 추정해 주는 온라인 툴로, 학생들이 실생활의 세금 결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음.
 - 세션 중에는 실제 본인의 소득과 여건을 직접 입력해 보기도 하고,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가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Tax caster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함.
 -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경험 기반 금융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학생들이 가상 혹은 현실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금융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확실히 빠르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Once Upon a Dime: Story-based Learning with FEPPP's Financial Education Library

- 워싱턴주의 금융교육 공공·민간 협력기구인 FEPPP(Financial Educ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금융교육 전문가 Amy Kliewer는 해당 세션에서 금융교육 관련 도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story-based learning) 방식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경제·금융 개념을 감성·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줌.

- FEPPP에서는 매달 e-뉴스레터(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 권의 그림책과 그 책을 통해 어떤 금융교육을 제시할 수 있는지,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배포함. 보통 30~40분 동안 수업할 수 있는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됨.

- 세션에서는 'A Bike Like Sergio's'라는 책을 참가자들이 모두 돌아가며 한 페이지씩 소리내어 읽었고, 실제 e-뉴스레터를 각자 받아서 책에 연계된 교육 포인트를 이해하고, 책을 읽으며 느낀 소감을 나누는 등 방식으로 진행됨.
- 지식 전달 중심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 맞는 이야기와 경험 중심의 학습 구조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을 제시함.

□ Ways to Pay - A Payment Methods Lesson!

- 조지아주 경제교육협의회(Georgi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의 부소장(Associate Director) Chris Cannon과 애틀랜타 연준(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의 대외협력 선임매니저(Outreach Senior Manager) Princeton Williams가 공동 진행한 세션으로,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 어떻게 진화해온 것이며,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결제 수단을 이

- 해하는 수업을 시연함.
- 결제 수단의 다양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결제 수단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게임과 그룹 토론을 활용했는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금융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학습 방안으로 제시함.
 - 세션 참가자 중 몇 명이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표(check), 가상화폐, 은행계좌(app), 상품권 등 다양한 지불수단 팻말을 들고, 모니터에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지불 가능 여부를 판단해 Yes or No 사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활동을 함. 이를 통해 제시되는 현실 속 다양한 사례에서 실제로 각 수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 장단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 또한, 각 지불수단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하여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됨.
 - 현대 금융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지불수단의 실제 거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함.
- Unlock Economics & Personal Finance: Explore the New Federal Reserve Education Website
-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새로운 교육 웹사이트를 오픈함에 따라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세션을 마련,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교육 코디네이터 Andria Matzenbacher와 선임 전문위원 Mike Kaiman이 발표를 맡아 사이트와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일부 콘텐츠를 시연함.
 - 교강사 등 교수자들이 영상, 텍스트,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Canvas, Google Classroom, Schoology 등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툴에 적용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미 전역의 연방은행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배움e+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학생을 위한 사이트는 아니라는 점에는 차이가 있음.

- 실제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니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등 구독 신청 대상자별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Measure for Measuring GDP: Using Active Learning to Introduce Macroeconomic Indicators

-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의 Andria Matzenbacher와 Mike Kaiman이 실시한 두 번째 세션으로, 국내총생산(GDP)의 구성요소와 거시경제 지표를 활동 중심(active learning) 방식으로 설명하는 수업 시안을 소개함.
- 수업은 GDP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우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됨. 물론 어렵고 사전적인 설명이 들어가지만, 이를 배워야 이후의 활동이 가능함. 따라서 GDP를 이루는 민간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을 이해한 후, 실생활 사례를 통해 구분·적용하는 참여형 학습 설계를 보여줌.
- 참가자들은 개념을 이해한 후, 교수자의 진행에 따라 몇 사람이 C, I, G, NX 등의 팻말을 들고 여러 가지 주어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 중 무엇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표현하며 GDP의 증가 혹은 감소를 체험
- 어떠한 방식으로 배워도 중고등 과정에서 이해하기에는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GDP를 참여형 수업을 통해 가시적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Inquiry through Data: Analyzing and Discussing Charts

- 해당 세션은 참석자들에게 C3Teachers에 게시된 토론 가이드를 제시하는 과정임. 학생들은 주어진 이슈를 관찰하고 반응하고 질문하는 일련의 ‘적용형 프레임워크’를 습득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거시경제 지표가 담긴 두 개의 데이터 차트를 살펴보고 토론하도록 유도함.
- 세션 발표를 맡은 Gretchyn Bedard은 당초 사회과 교사로 세계사 수업을 주로 해왔는데 주변 금융 세계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경제 금융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미 독립 선언 250주년

을 기념하는 고등학교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함.

- 또한 그가 활동하고 있는 C3Teachers는 사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었음. 학교급별로 적극적, 자율적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 구조 형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됨.

□ Beyond Compounding: The 5 Elements of Time Value of Money Demystified

- 해당 세션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복리의 개념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게 함. 기본적인 수학만 할 수 있다면 편리하고 손쉽게 복리가 가져다 주는 마법을 배움으로써 재정적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함.
- Dean Harris는 20년 이상 겸임 교수로서 기업 금융과 개인 금융을 강의했으나 10년 전 은퇴한 후 고등학생 수준에 맞춰 소비자 금융 개념을 가르치고자 Saving And Borrowing.org을 설립함. 그는 금융 지식과 돈의 시간적 가치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과 기법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생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문제해결 역량이 낮은 이들을 돕고 싶다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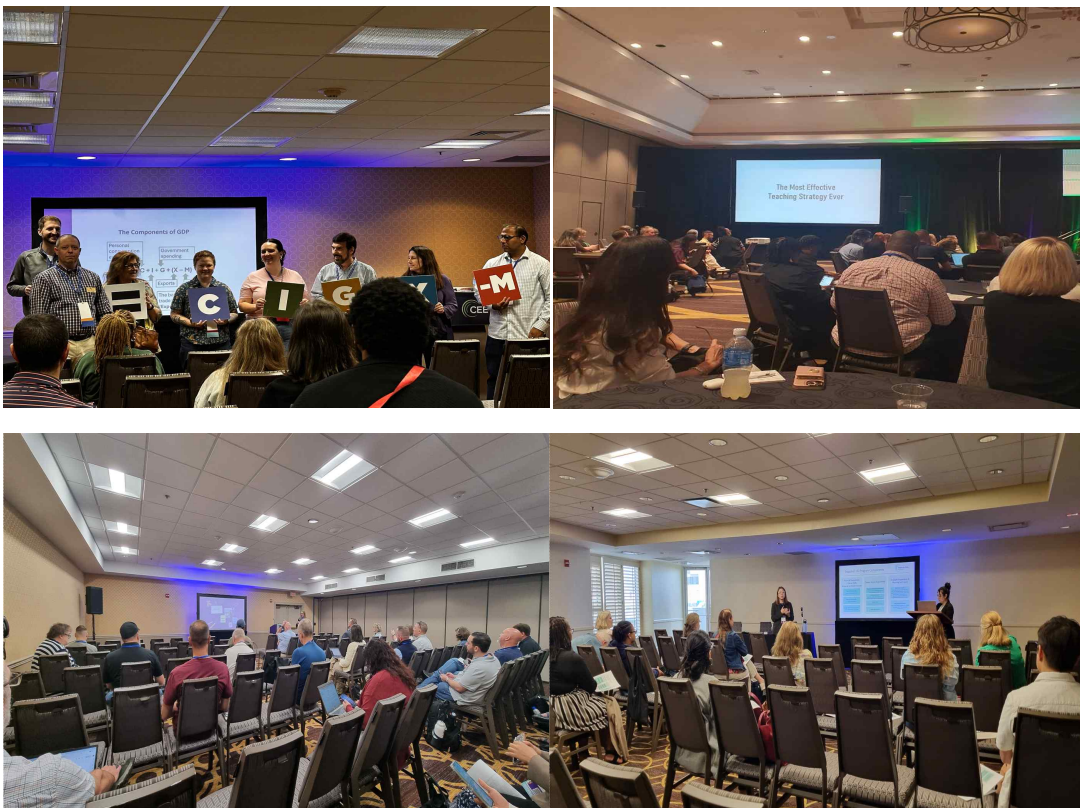
□ Invest in Girls: How to Bring a High-Impact Financial Literacy & Finance-Careers Program to Your School

- CEE 산하 Invest in Girls 프로그램 디렉터인 Imogene Winkleman와 담당 연구원 Gabriella Trespalacios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과정, 성과 등을 소개
- Invest in Girls는 여학생 중 12%만이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성별에 따른 금융 이해력 차이가 금융 지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봄. 때문에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여학생들의 재정적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이 금융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밝힘.
- 이들은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①Be the CFO of Your Life:

The Basics of Personal Finance은 처음 경제교육을 시작하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예산 작성, 신용카드 사용, 이자율과 세금 등에 대해 학습하게 함. 이 과정을 마치면 ②Be the CIO of Your Life: The Basics of Investing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에 대해 익히게 되고, 다음으로는 ③Be the CEO of Your Future: Young Adult Skills에서 취업과 진로 지원을 위한 인터뷰 및 협상 기술, 재정적 안전망 구축 등을 주제로 인턴십과 멘토링을 거치게 됨.

- Invest in Girls는 학교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민간 기업과 금융 회사, CEE 회원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기획재정부·KDI 공동 주최)에 연사로 참석했던 Ruben A. Rivera CEE 수석 이사가 함께 질의응답을 하면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 강조함.

< 다양한 세션 발표 및 활동들 >



나. 포스터 세션 및 전시 부스

□ BanZai

- 경험 기반 학습 플랫폼 BanZai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개인 금융, 직업 탐색 등을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금융과 관련해 소득세, 보험료 등 급여 공제와 관련된 정보, 상황을 주고 생활비 계획을 세워 보는 등 실제 금융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게 함.
- 또한, 직업 분야 찾기, 직업 선호도 확인 등 실제 직업 탐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디지털 리터러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등 요즘 디지털 시대에 올바른 디지털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Intuit(Intuit for Education)

-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인 Intuit는 젊은 세대에게 개인 및 기업 재무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무료 금융 문맹 퇴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예산 관리, 저축, 신용 관리 등 현실적인 금융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 형식, 예를 들면 온라인 웹 및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기 주도형 온라인 동영상, 게임, 활동 등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음.
- 교사들을 위한 전문 개발 도구, 강의 계획안, 워크시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여 학생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

□ TEEEM

- TEEEM은 2018년 빈곤, 불평등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임.
- 소외된 지역 사회의 학교와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지원(신청학교에 최대 500달러 지원)은 물론 글로벌 임팩트와 사회적 공익을 높일 수 있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와 행사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음.

- 공감 프로그램은 국제NGO들과 함께 학생들의 문화 교류,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공감이 지속 가능한 변화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게 함.
-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인턴십, 멘토링,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며 이를 적용한 학교들의 실천 사례를 소개

□ FRE(Federal Reserve Education)

-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경제학 및 개인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이 사회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온라인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코스 수수료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연준(Fed)의 역할과 경제·금융 체계에 대한 인식 향상을 꾀하고 있음.

< 전시 부스 전경 >



Ⅲ. 시사점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소개하는 CEE 교육자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경제교육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미국 전역의 교사, 글로벌 경제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스킬을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경제교육 생태계가 탄탄하게 조성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참여 교사에게는 평생교육 학점(CEU)을 부여함.
 - 세션에 참여한 경제 교사 중에 과학이나 수학, 역사 등 다른 교과 과목의 배경을 가진 사례가 다수 눈에 띄어 학제 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함.
- 다양한 경제·금융 교육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KDI 경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할 만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다수 얻었음.
 - 세션에서 소개된 수업 방식이 대체로 체험형, 활동형 등 학생들이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TPT, Intuit for Education, FRE 등 유용한 레퍼런스를 알게 되어 경제교육자료 제작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발제자들이 소개한 『지구별 경제탐험』 세션의 참가자들이 우리 콘텐츠의 내용과 품질, 디자인에 높은 만족도와 호감을 보인 점에서 향후 KDI 경제교육 콘텐츠의 해외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KDI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경제교육 콘텐츠가 미국 내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기회 삼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
 - 국내외 경제교육 전문가들과 경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